

# 담양교육청-담양군문화재단, '찾아가는 공연예술교육'

### 읍내에 나오기 어려운 학생·주민들 위해 '주니어 메타\_버스'사업 운영 지역 문화 동력 성장 및 열린공동체 문화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실시

담양교육지원청은 담양군문화재단 해동문화예술촌과 함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시골 작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공연예술교육 '주니어 메타\_버스'사업을 운영하였다.

'주니어 메타\_버스'는 읍내에 나오기 어려운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여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과 학교가 지속적 관계 맺기를 통해 지역의 문화 동력을 성장시키고 열린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번 공연은 월산초등학교, 수북초등학교, 용면초등학교 세 학교에서 운영되었다. 첫 번째 공연은 11월 11일 금요일 월산초등학교 운동장에 마련되었다. 이 공연을 함께한 타악그룹'얼췌'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

특한 신명의 호흡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하고 서양 드럼을 이용한 연주, 퓨전 판소리, 퓨전 설장구 등 얼췌만의 독창성과 음악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참여 어린이들은 예술인들이 사용한 악기를 직접 두드리면서 타악연주자로서 거듭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는 서아프리카의 전통리듬과 역동적 움직임으로 아티스트와 관객이 주고받는 에너지로 가득 찬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의 공연으로 11월 18일 금요일에 수북초등학교에서 함께하였다. 본 공연은 1인 1악기 어린이 참여형 공연으로 폭발적 에너지를 느끼며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30일 수요일에는 오케스트라를 특색교육 활동으로 하고 있는 용면초등학교에서 관주웹버오케스트라 공연

이 실시되었다.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와 학생들에게 클래식의 기본 용어와 악기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음악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담양 지역의 바이올린 영재 학생이 특별출연하여 오케스트라팀과 합주하는 시간을 통해 예술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수북초등학교 한 학생은 "우와~ 무대가 화려하고 진짜 대단했어요. 공연하는 동안 함께 춤추고 소리 지르고 참여하니 정말 신났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아프리카 악기도 함께 두드리려고 공연을 같이 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 공연을 관람한 한 학부모님은 "오랜만에 수준 높은 공연 관람으로 귀를 호강하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오케스



트라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수 담양교육장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재단과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의미 있었다. 공

연의 수준도 매우 높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여 더 많은 담양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 해남 화산초, 2022. 꽃메 문화예술제 성료



해남 화산초등학교는 최근 꽃메동이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예술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학교 밴드(꽃메동이 나눔터)에도 생중계하며 오랜만에 대면으로 흥겹게 진행되었다.

2022. 꽃메 문화예술제는 내 고장 愛·知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했기에 더욱 뜻깊은 소통의 장이 되었다. 게다가 학부모회 특색사업으로 사랑 나눔 실천 바자회까지 더해져 서로 배려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학교 관계자는 "코로나로 아직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화산교육공동체의 노력과 열정으로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어 신나게 즐기면 좋겠다." 는 소중

한 마음을 전했다.

꽃메교육가족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렸던 이 날, 우리는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선보였다. 첫 순서는 학생들의 아름다운 몸짓(삼고무)으로 화려하게 예술제의 문을 열었다. 이어서 무용, 기악, 가창, 합주, 난타, 국악(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무대들이 꾸며졌다. 지켜보던 관객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이로써 예술제 분위기는 갈수록 고조되었다. 학업과 코로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준 각 무대도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중간에 있었던 이벤트(행운의 경품 추첨)도 반응이 좋았다. 더불어 두란노 지역아동센터와의 화합(합창, 합주 등)과 관현악 초청 공연(오전)은 꽃메예술제의 품격을 더 높여 주었다.

2022. 꽃메문화예술제를 기획한 안소연 교사는 아주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교육활동을 위해 한 마음, 한뜻으로 땀땀 뭉쳐서 행복하다. 학생들의 흥미와 취미를 고려하여 무대를 꾸밀 수 있었던 점에 감사하고, 많은분들이 진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기분이 좋다"는 소감을 전했다.

2학기 학생회장 정동현 학생은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더 좋아져서 인근 학교들(화산중학교)도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하고 싶다. 그날이 벌써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영광초, '제2회 이음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성료

### 영광초 38명의 오케스트라 학생들, 연주회 개최



영광초등학교이음오케스트라가 지난 6일 영광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이번 연주회는 영광초 38명의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방과 후에 연습하며 익힌 연주곡을 지역민, 교직원, 학부모, 재학생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정기

연주회다.

이 연주회에는 강종만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한빛원자력본부 이학웅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해서 꿈과 희망을 연주하는 영광초 이음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칭찬을 보내주었다.

특히, 한빛원자력본부는 영광초와 MOU를 맺고 올해 3천만원을 전폭 지원해주어 학생들이 단원복장을 갖추고 여름, 겨울 캠프를 운영할 수 있었다.

영광초 이음오케스트라는 2021년에 전남문화예술협회 지원으로 창단되었고 제1회 정기연주회도 가졌었다.

이번 연주회는 워크의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신이치 스키의 '알레그로',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NO1' 등 모두 14개 곡이 연주됐다. 특히 라브리의 'Snow Day!', 수잔 데이의 'On the Open Seas', 쿠퍼 포드의 'Exhilaration'은 국내 초연곡이어서 학생들에게는 의미가 더 크다.

영광=서희권기자

## 광양 다압초, '자녀와 함께 신나는 체육교실'

### 다문화 학부모·졸업생 다문화 학부모 포함하여 총 20명 대상

광양 다압초등학교는 다문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울림 체육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 학부모 어울림 체육교실'은 예비 다문화 학부모 및 졸업생 다문화 학부모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학부모 및 자녀가 10월 31일-11월 28

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배드민턴 강사를 초빙하여 매주 월요일 저녁시간(18:00~20:00)을 이용해 자녀와 함께 체력을 단련하고 자주 보지 못하는 학부모들과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



고 있다.

광양=김현근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